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김영희(조치원중학교 교사)



스티커

김선미 장편소설

주제어: 판타지, 복수, 상처, 희망, 성장, 우정, 가족

다산
책방

•책 소개

고등학생 장시루는 다크웹에서 ‘저주 스티커’를 판매하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한다. 스티커 하나면 미운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 하지만 이 신비한 거래 뒤에는 상상보다 훨씬 무서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통적인 저주 인형 대신 스티커라는 현대적 매체를 활용한 독창적 설정과 다크웹이라는 현실적 배경이 만나 신선한 판타지 세계를 구축한다. 따돌림, 묻지 마 폭행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품은 주인공 시루와 따뜻하고 선량한 소우주의 만남은 작품의 중심 기둥이다. 대조적인 성격의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 고립과 연결, 절망과 희망, 복수와 용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저주 스티커가 쌓여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집단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 감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어 해소할 때 사회적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주 스티커를 주문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진심으로 저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마음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 때 날 견디게 해 준 건 내밀어진 누군가의 손이었다.”라는 소설의 맺음말은 나의 주변에 있는 상처 입은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한다.

•학습 목표

- ① 인물의 선택과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징적 소재의 의미를 해석하고 현대사회의 갈등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활동	소설 속 내용 상상하기
2	읽기 중 활동	인물 이해 1. 인물을 상징하는 물건 그리기 2. 인물의 마인드맵 그리기 3.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기
3		중심 소재와 사건 이해 1. 상징적인 물건의 의미 찾기 2. 사건의 세부 정보 정리하기
4		소설의 주제 이해(1) 1. 인물의 행동 이해하기 2. 인물의 감정에 이입하기
5		소설의 주제 이해(2) 1. 소설의 중심 소재 이해하기 2. 소설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기
6	읽기 후 활동	핵심 주제 도출 1. SNS 프로필 만들기

1. 저주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느 날, 오래된 께작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책에 얹은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펼치자 '스티커로 저주를 거는 방법'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1) 이 책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2) 『스티커』의 주인공인 '나'가 한 선택을 추측해 봅시다.

3) 여러분에게 저주 스티커를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요?

4) 1), 2)에 쓴 생각을 짝과 나누어 봅시다.

1. 다음의 카드에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그린 뒤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를 쓰세요.

장시루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시루 엄마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시루 아빠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소우주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우주 엄마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우주 아빠

인물을 대표하는 소지품을 그리세요.

소지품 선정 이유

활동 안내 모둠원들과 상의한 뒤 각 인물을 그림으로 표현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학생 한 명은 등장인물 한 명의 그림 카드를 맡아 제작합니다. 역할을 나눌 때는 모든 인물의 물건이 고루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1번에서 표현한 인물들과 비교할 때, ‘반만해’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느껴지나요?

마인드맵을 그려 ‘반만해’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뉴스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직접 나눠 주며 좋은 일에 앞장서는 듯 치장했던 반만해 대표는 사실 음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거래처 갑질로 신고당한 일도 있고 공장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환경 오염 문제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익명 앱에서는 회사가 저지른 비리를 고발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한 사건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직원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악덕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였다. (217쪽)



반만해

활동 안내 학습지에 실린 부분 외에도 작품 속 다른 장면이나 대사를 떠올리며 반만해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 장면을 참고할수록 인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3.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시루와 소우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서 도움받지 못한 거라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오히려 동물이 인간보다 더 나은 게 아닐까. 적어도 동물은 기분이 나쁘다고 가만히 있는 다른 상대를 물어뜯지는 않잖아. 어릴 때부터 내 주변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기적이고 서로 반목한다. 사람 자체에 염증이 느껴지자 세상과 연결이 뚝, 하고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망해 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54쪽)

“가업이니까 한다는 이유 말고, 너는 왜 저주를 꺼려고 하는데?”

소우주가 마치 쉬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유는 간단해. 나는 어릴 적부터 따돌림을 당했어. 스티커를 보고 그걸 떼겠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 가면 아무래도 날 이상하게 보니까. 그때마다 나도 상처받아. 근데 그건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저주할 생각은 해 본 적 없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가업을 잇는 거야.”

어릴 적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에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얼마나 당했는데?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다면 별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가해자를 이해하는 건데? 저주 스티커를 가해자에게 붙일 생각은 나도 없다.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기분마저 옳지 않다고 가볍게 치부할 생각도 없다.

“다 아는 척 굴지 마. 너도 결국 착한 척하는 거잖아.” (104~105쪽)

구분	장시루	소우주
자신이 경험한 따돌림에 대한 생각		
‘스티커’ 앞에서 보이는 반응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3-1.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써 주세요.

1. 장시루가 궤짝에서 찾은 물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나 의미를 가졌는지 정리해 보세요. 혹시 그 물건이 사건 전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더 좋습니다.

검은 돌멩이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는데 촉감이 좋았다. 둥근 면에 장난으로 눈알을 붙였더니 제법 귀여워져 그대로 방에 놓아두었다. 엄마가 흠친 돌멩이를 알아볼지 궁금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는데도 모르는 눈치였다. 엄마가 그렇지 뭐. 엄마는 늘 내게 관심이 없었다. 검은 돌멩이를 본대도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을 주워온 줄 알 거다.

사람 친구라면 사절이지만 검은 돌멩이를 친구로 삼는 건 그럴듯했기에 이름도 지어 줬다. 이름은 ‘마요’, 하지 마요, 말 걸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요. 그런 의미의 ‘마요’이다. 표현하기 힘든 내 마음을 대신 말해 준달까. 기특한 나의 친구에게 직접 짠 털모자도 씌워 주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지금까지 돌보고 있다. 칠보 볼펜은 딱 봐도 수상한 필기구였다. 보는 순간 묘한 감각이 전신을 훑어서 나도 모르게 가져왔다. 겉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석을 잘게 잘라 세공해서 세로로 길쭉한 가면을 새겨 놓았다. 가면에 그려진 눈은 검었고 입은 시웃 자로 처졌다. 글씨를 쓰면 가면이 웃을까 싶어서 큰맘 먹고 써 보았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대신 연하고 붉은 액이 종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꼭 피처럼 보였다. 흐릿한 글씨를 보고 있자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더 사용하지 않고 서랍에 고이 모셔 뒀다. 궤짝에 도로 처박아 두면 웬지 벌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략]

먼지를 떨어내자 기이한 문양이 가득한 표지가 보였다. 제목은 없었다. 종이가 양피지처럼 보여서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책이 국내로 흘러들어 온 건가 싶었는데 의외로 글자는 한글이라 맥이 빠졌다. 일부러 불길하게 보이려고 연출한 건지, 아니면 양을 잡는 김에 아까우니 피라도 써 버리자는 구두쇠 정신인 건지 모르겠지만, 피로 쓴 듯한 붉은 글과 그림이 가득했다. 다만 칠보 볼펜으로 쓴 것과는 달리 글자나 그림이 짙하고 선명했다.

첫 장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법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스티커로 저주를 거는 방법.

(22~24쪽)

물건	그림	이 물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물건은 소설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검은 돌멩이 (마요)			

칠보 볼펜			
책			

2. 다음은 『스티커』에 그려지는 주요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세부 정보를 정리해 보세요.

순서	세부 정보 정리하기
1 (예시)	- 장시루가 궤짝을 뒤지다가 책을 발견함 -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낌 - 먼지를 털자 불길한 문양과 피로 쓴 듯한 글씨가 나타남 - 불길하다는 인상을 받음 상황 → 궤짝 안에서 책을 발견함 → 인물 반응 책의 특징 - 표지에는 제목이 없음 - 스티커로 저주를 거는 방법이 쓰임
2	저주 스티커를 만들어 팔기 시작함
3	학교에 저주 스티커 사건이 발생함

4	소우주와 만남
5	스티커의 비밀을 알게 됨
6	자연재해가 일어남
7	최정진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됨
8	반만해의 정체를 폭로함
9	큰 지진이 일어남

1. 다음은 최정진 선배 동생의 대사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아냐! 사실 나도 무서워. 나도 형이 죽을까 봐 겁난다고! 내가 왜 형이 죽기를 바라겠어? 나는 그냥…… 형이 잠깐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했던 거지, 죽기를 바란 게 아니야. 잠깐 관심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티커를 붙이면 형이 잠깐 사라진다고 했지, 죽을 거라고는 안 했던 말이야. ……어떻게 해, 나 때문에 형이,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 (182쪽)

1-1. 다음의 문장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후회는 저주의 일부이다.

활동 안내

-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의문을 던질 만한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중심 문장을 읽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 질문을 만들기 힘들다면 ‘왜’, ‘어떻게’, ‘무엇을’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1-2. 만든 질문을 모둠에서 공유하고, 함께 대답하며 의견을 나눠 봅시다.

1-3. 다음은 이 소설에서 저주 스티커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작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앞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작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여 봅시다.

선배들은 저주가 발동되자마자 당일에 저주 부메랑을 받았다. 반면 박유리는 3일 뒤에나 부작용에 시달렸다. 같은 접착력을 가진 저주여도 부작용이 일어난 시간이나 강도가 제각각이었다. (173쪽)

2. 여러분이 장시루라면 ‘스티커를 붙인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겠습니까?

조언의 내용을 이유와 함께 써 주세요.

“너를 지키는 방법이 저주밖에 없었어?”

내가 망설이는 사이, 뜻밖에도 소우주가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울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소우주를 쳐다봤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요! 나는 정말 죽겠는데도…….”

“네가 당한 일을 폄하하는 거 아니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 앞으로도 널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어. 그때마다 저주 스티커를 붙일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빌면서?”

“그나마 저주 스티커가 있어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202~204쪽)

2-1. 모둠원과 돌아가며 각자 쓴 조언을 소개해 봅시다. 의견들을 비교하고 토의한 뒤,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것을 모듬의 대표 조언으로 정해 봅시다.

2-2. 여러분의 모듬 대표 조언이 가진 특징을 다음의 □에 표시해 봅시다.

- ☐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 ☐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며 존중하였다.
- ☐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드러났다.
- ☐ 장기적으로 힘이 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2-3. 다음은 ‘스티커를 붙인 아이’에게 장시루가 한 조언의 내용과 생각입니다. 인상적인 문장을 필사한 뒤 그것이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를 짝과 나누어 봅시다.

“부딪쳐야지. 부딪쳐도 깨지지 않도록 널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이 아이가 입김만 불어도 날아가게 생겼잖아. 네가 널 지켜 줘. 땅에 딛고 선 두 다리에 힘주고 눈에도, 가슴에도, 손가락에도 힘을 뺏 주고 계속 널 지켜 내는 거야. 널 욕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갈수록 나아질 거야. 약속해. 오늘부터 널 지켜 내는 연습을 하면 시간이 지나 네 앞에 어떤 멍청이가 나타나도 너는 깨지지 않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지켜 줘야 하는 거였구나. 마음이 부서지려고 할 때, 나쁜 마음이 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널 지켜줘야 했구나. 내가 널 지켜 주지 못해서 나는 저주 스티커를 만들었던 거구나. (204쪽)

1) 마음에 남은 문장을 옮겨 써 봅시다.

2) 그 문장이 특별하다고 느낀 이유를 정리한 뒤 짝과 공유해 봅시다.

1. 저주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손등에 붙은 저주 스티커를 내려다보았다. 저주의 신이 끈적거리는 더러움을 남기기 위해 내 손을 감싸 쥐었나 보다. 이제야 왜 저주가 스티커가 되었는지 알 것 같다. 누군가를 해하고자 마음먹은 순간, 그 마음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를 떼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262쪽)

1-1. 소설의 중심 소재가 '스티커'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1-2. 저주가 가진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떠올려 본 뒤, 결과를 짝과 비교해 봅시다.

다른 물건	이유

2. 토의 주제를 바탕으로 모둠원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개인의 상처와 분노가 쌓여 사회 전체에 퍼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2-1. 다음은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저주 스티커와 자연재해의 관계입니다. 위에서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추측해 봅시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주 스티커는 떨어져서 땅으로 스며들어. 저주 스티커에 갇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땅에 흡수되는 거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더 이상 땅이 품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야. 작게는 진도가 낮은 지진이나 규모가 작은 해일이 일어나고, 크게는 산사태, 폭풍, 대형 산불, 진도가 큰 지진이 발생해.” (193쪽)

2-2.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노력을 정리한 뒤 모둠원과 공유해 봅시다.

저주 스티커를 주문했던 다른 모든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진심으로 저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마음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때 날 건디게 해 준 건 내밀어진 누군가의 손이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소우주의 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는 안다. 저주가 다시 번져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걸. (263쪽)

1. 소셜 속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서 SNS 프로필을 만들어봅시다.



① 아이디:

② 상태:

③



④ 내용: